

고등학생의 호스피스자원봉사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삶의 의미 비교

류 청 자

영남외국어대학 간호학과

The Influence of Hospice Volunteering and Death Education on High School Students' Attitude toward Death and Meaning of Life

Chung-Ja Ryoo

Department of Nursing, Youngnam Foreign Language College

ABSTRACT

Purpose: This descriptive research was carried out to identify how high school students' attitude to death and their meaning of life were affected by hospice volunteering and death education. **Methods:** This study is based on a structured questionnaire designed for 180 high school students who were given death education while doing volunteer work at non-profit hospice hospitals and another 288 high school students not doing any hospice volunteer work. The collected data was processed by the SPSS 20.0 program and then analyzed by χ^2 test, t-test and ANOVA test. **Results:** High school students' attitude to death and their meaning of lif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y had volunteered at hospice hospitals. The group with hospice volunteering experience tended to be more negative about death and have a higher meaning of life compared to those without hospice volunteering experience. Students with proper hospice recognition made up 52.4%, those who expressed hopes to receive hospice-care themselves if necessary accounted for 70.5%, and those who said they would like to take care of their family members either at home or at a hospice center if any of them got incurably sick comprised 59.0%. Those who thought dignified death is to be with one's family or any other meaningful person were 47.6% and 18.5% of the students thought that 'thinking they had led a meaningful life' was the core of a dignified death. **Conclusion:** Given the above results, it became clear that hospice volunteering and death education can affect high school students' meaning of life and their attitudes toward death.

Key Words: Highschool students, Meaning of life, Attitude to death, Hospice volunteering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과거에는 대가족 안에서, 아기가 태어난 방에서 조상을 떠

나보내며 생명의 탄생과 죽음을 함께 경험하면서 자연스러운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화와 의학의 발전에 따른 수명의 연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태어나고, 병원의 각종 의료장비에 둘러싸여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삶과 죽음이 일상에서

Corresponding author: Chung-Ja Ryoo

Department of Nursing, Youngnam Foreign Language College, 780-9 Namcheon-ro, Hyeopseok-ri, Namcheon-myeon, Gyeongsan 38695, Korea.

Tel: +82-53-810-7767, Fax: +82-53-810-0199, E-mail: rcj1109@hanmail.net

Received: Nov 15, 2016 / Revised: Dec 18, 2016 / Accepted: Dec 20, 2016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격리됨에 따라 현대인들은 가족이나 친지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생명의 유한성과 삶의 소중함을 자각하고,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인격적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1987년 자살률은 10만 명 당 8.2명이며 88년의 자살률은 7.3명으로 굉장히 낮은 수치였지만, IMF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1998년 18.4명으로 자살률이 크게 늘기 시작해서 2011년 31.7명, 2015년 26.5명으로 OECD회원국 중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15~19세 청소년의 경우 전체 사망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3.6%에서 2011년에는 36.9%로 급증한 이래 사망원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1].

일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에서 사람은 자살할 권리가 있다'는 질문에 56.6%가 찬성했으며 23.3%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자살하려고 한다면 도와줘야 한다'는 질문에 50%가 찬성을 했다. 중국 청소년의 약 20%가 자살을 택할 수 있다는 대답에 비해 거의 3배에 가까우며[3], 건강한 청소년들도 죽음을 자살의 형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이는 청소년들이 힘들거나 절망스런 상황일 경우 성별, 종교, 부모 생존여부와 관계 없이 자살을 생각하고[4], 충동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의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면서 정부 이하 관련 기관에서는 학교 내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해 청소년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사나 간호사, 심리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한 심리치료를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5].

그러나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의 대책이나 수습보다 시급한 것은 무엇보다도, 정신적 가치의 소중함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잘못된 죽음이해를 시정하고, 자살이 해결책 혹은 돌파구가 될 수 없으며[6] 남겨진 가족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만을 남기게 될 것임을 미리 알려줌으로서, 존엄한 죽음을 지향하게 하는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의사 Viktor Frankl [7]은 삶의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희망을 잃지 않는다고 하였다, Robert Stivenson은 고등학교의 죽음교육에서 상실로 인한 슬픔과 자살 충동, 죽음에 대한 불안감 등을 제시해 죽음과 관련된 청소년기의 문제들에 대처하도록 하면, 삶의 소중함과 가치를 일깨워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고통스러운 일 자체보다는 그 상황에서 의미를 찾아 고통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으며[8], 죽음을 직시할 경우 삶의 가치에 눈을 돌려 남은 시간을 의미 있고 보

람되게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죽음에 대한 개인의 감정과 신념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개념인 죽음에 대한 태도가 증진된다고 하였다[9,10].

한편 청소년기는 Erikson의 정신사회적 발달과정에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삶의 가치기준을 확립해나가기 위한 과도기로서 급격한 심리적, 신체적 변화에 따른 혼란을 겪을 수 있고, 고차원적인 지적능력의 발달로 추상적 명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므로 삶과 죽음에 대한 올바른 철학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고등학생들은 수험생의 신분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장시간 시험공부에 매달리기 때문에, 미처 삶과 죽음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인생에 대하여 고민하고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

독일과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들의 경우 초등학교에서부터 정규 교과과정을 통해 나이에 적절한 죽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죽음을 다루고 있는 교육으로는 C시의 H대학교와 S시의 D여대에서 죽음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있고, 간호대학의 전공 선택과목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간호 강좌에서 말기 환자의 돌봄을 제시하고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죽음교육의 대부분은 인생의 후반기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복지회관이나 문화센터 등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인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경우 살아온 환경과 지식,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이해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10], 사고의 정도가 유사한 학생들에게 교육기관에서의 정규과목으로서의 죽음준비교육은 효율성 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며, "내가 겪었던 모든 경험 중에서 죽음이라는 현실을 직면한 것이 내 삶을 가장 풍성하게 해주었다."는 Kübler-Ross [11]의 말처럼 죽음준비교육이란 바로 삶을 위한 교육이므로 인생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죽음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삶의 한 과정으로서의 죽음에 대해 숙고해보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죽음준비교육이란 죽음, 죽음과정, 사별과 관련된 모든 측면의 교육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그것들과 삶의 관계에 관한 요인들을 계속 탐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때[12] 철학, 사회학, 종교학, 심리학, 의학 등 여러 학문분야의 협력이 요구되는 다학문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13]. 그러므로 현재의 도덕이나 윤리과목에 포함된 단편적인 삶의 의미교육만으로는 그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호스피스는 현대의학으로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말기암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죽음을 삶의 자연스런 과정으로 받아들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

성과 품위를 유지하며 내적 성장을 돕고, 죽음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고통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호스피스 자원봉사는 호스피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말기 암 환자의 삶과 죽음, 고통을 간접 체험하면서 인간존재의 유한성을 인식하게 되고 더불어 자신의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를 변화시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14]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2015년 7월 15일부터 의료보험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말기암 환자로 그 대상자가 국한되어 있지만, 2017년 8월부터는 다양한 질환으로 확대되어 시행될 예정[15]이다. 그러므로 호스피스에 대한 관심이 일부 의료인이나 자원봉사자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관심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한 죽음이 임박한 환자들을 도우면서 죽음을 경험한 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16]와 삶의 의미,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17-19]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는데 자원봉사자 대부분이 40~50대의 중년여성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호스피스자원봉사 경험이 고등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장차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청소년들에게 호스피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그들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세워나가는데 호스피스봉사를 접목한 죽음교육이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고, 죽음준비교육과 자살방지교육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목적

- 일부 고등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 삶의 의미, 호스피스 인식 정도를 알아본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등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 삶의 의미의 차이를 알아본다.
- 고등학생의 죽음교육 및 호스피스자원봉사 경험이 죽음에 대한 태도,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죽음준비교육과 호스피스자원봉사 경험이 고등

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4개 고등학교에서 편의추출하였다. 최종 대상자는 서울에 소재한 Y, D여자고등학교, 경기도에 소재한 B고등학교와 K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475명 중 응답이 누락된 7명을 제외한 468명을 최종 결과분석에 활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삶의 의미

삶의 의미는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인간의 참된 본질을 실현하는 것[7]으로 Crumbaugh와 Maholick [20]이 개발한 Purpose In Life (PIL) 중 Kim [21]이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거쳐 청소년들에게 사용한 10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삶의 즐거움(5문항)과 삶과 자신에 대한 인식 및 수용(3문항), 삶의 목적인식(2문항) 3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7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의미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21]의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 .89였고,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α 값 .86이었다.

2) 죽음에 대한 태도

죽음에 대한 태도는 Collet와 Lester [22]가 개발하고 Yoo [23]가 고등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Fear of Death Scale (FODS)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20문항의 5점 척도로서, 죽음태도의 5개 하위영역인 죽음금기, 죽음불안 및 두려움, 죽음 회피, 죽음거부, 죽음슬픔에 대한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에 대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23]의 연구에서 .7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72였다.

3)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은 호스피스의 정의, 대상, 역할 등에 대해 이해하는 정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Lee [24]가 타당도 및 신뢰도 검사 후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8문항이며, 호스피스에 대한 인지도(4문항), 호스피스 간호요구도(3문항),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인식(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별로 2개에서 10개의 답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C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2014년 12월 20일부터 2015년 1월 5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자가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4개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휴식시간에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즉시 회수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의미와 죽음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는 남학생이 100명(21.4%), 여학생이 368명(78.6%)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222명(47.4%), 2학년이 182명(38.9%), 3학년이 64명(13.7%)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52.8%, 기독교 29.1%, 불교 10.9%, 천주교 5.5% 순이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가 180명(38.5%)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6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100 (21.4)
	Female	368 (78.6)
Grade	1st	222 (47.4)
	2nd	182 (38.9)
	3rd	64 (13.7)
Religion	None	247 (52.8)
	Protestant	136 (29.1)
	Buddhist	51 (10.9)
	Roman catholic	26 (5.5)
	Others	8 (1.7)
Death education and hospice volunteering	Yes	180 (38.5)
	No	288 (61.5)

2.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고등학생들의 호스피스 인식 조사에서는 호스피스를 알고 있다는 경우가 202명(43.2%)로 절반이 못되었고, 인지 경로는 학교수업 22.3%, 마스크 12.8% 순이었다. 가족내 호스피스 경험이 있는 경우가 25명(5.3%)이었고, 호스피스의 정의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38.9%에 달했다. 필요할 때 호스피스를 활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70.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말기암 판정을 받았을 때 간호를 받고 싶은 장소로는 가정에서 가족의 간호를 받는 것을 가장 많이 원했다(Table 2).

3. 대상자의 특성별 삶의 의미와 죽음에 대한 태도

고등학생의 삶의 의미 조사 결과, 영역별로 삶의 즐거움이 4.26점, 삶의 목적인식이 4.95점, 삶과 자신에 대한 인식과 수용이 5.15점 순이었다(Table 3).

고등학생들의 성별, 학년별, 종교별로 삶의 의미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호스피스자원봉사 경험 유무에 따라 삶의 의미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서 호스피스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에 삶의 의미 평균값이 높았다($p=.002$). 죽음에 대한 태도에서는 성별, 학년별로는 차이가 없었으나 종교별($p=.002$)과 호스피스자원 봉사 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1$).(Table 4)

4. 대상자의 특성별 죽음에 대한 태도의 하위영역 차이

고등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죽음금기가 3.25점, 죽음회피가 3.08점, 죽음슬픔이 1.80점 등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죽음금기, 죽음회피, 죽음부정이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죽음금기, 죽음회피는 더 높은 평균값을, 죽음부정은 더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종교 유무에 따라서는 죽음회피만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종교가 있는 경우에 죽음회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p=.001$). 마지막으로 죽음교육 및 호스피스 자원봉사 경험은 죽음금기, 죽음회피, 애도에 차이를 보였는데 죽음 교육 및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에 죽음금기, 죽음회피, 애도의 평균값이 더 높았다(Table 5).

논 의

Erikson의 사회심리 발달과정에서, 청소년기에, 자신에 대

Table 2. Hospice Perception of the Subjects

(N=468)

Variables	Categories	n (%)
Hospice awareness	Yes	202 (43.2)
	No	266 (56.8)
Route of hospice recognition (n=202)	School	104 (22.3)
	Massmedia (TV, Radio)	60 (12.8)
	Books, magazines	29 (6.2)
	Hospital	7 (1.5)
	Neighbor	2 (0.4)
Hospice-experience in family	Yes	25 (5.3)
	No	450 (96.7)
Hospice-definition	Helping the patient to live his or her remaining life fully, and to face a peaceful death	245 (52.4)
	Don't know	182 (38.9)
	Prolonging life of patients with incurable illness	22 (4.6)
	Passive euthanasia	11 (2.3)
	Efforts to avoid death	8 (1.7)
Plan to rely on hospice when necessary	Yes	330 (70.5)
	No	138 (29.5)
Preferred place of care in case of terminal cancer	Family care at home	181 (38.8)
	Home-visits by hospice team	123 (26.2)
	Hospital: hospice wing	109 (23.3)
	Independent hospice institute	55 (11.7)
Dignified death	Being with friends and family	223 (47.7)
	Having a sense of approval for one's life	86 (18.3)
	Not being a burden to someone else	61 (13.0)
	Arrangement of one's surroundings	34 (7.3)
	Peace of the mind (spiritual stability)	24 (5.2)
	Painlessness of the body	17 (3.6)
	Active choice of treatment	11 (2.3)
	Mental alertness until death	7 (1.5)
	Dying at home	5 (1.1)

Table 3. Meaning of Life of High School Students (N=468)

Variables	M±SD
Joy in life	4.26±1.15
Awareness of goals in life	4.95±1.25
Awareness and acceptance of life and oneself	5.15±1.07

한 정체감이 긍정적으로 형성되면 이후의 인생 단계들에서 맞게 되는 심리적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입시와 취업준비로 바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스스로 삶과 죽음에 대해 진지한 통찰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삶의 올바른 태도와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함양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방편의 하나인 올바른 죽음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적절한 교육내용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그들의 죽음태도와 삶의 의미, 더불어 호스피스 인식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고등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삶의 의미,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호스피스병원에서의 죽음교육 및 호스피스자원봉사 경험이 고등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삶의 의미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고등학생 죽음준비교육 및 호스피스자원봉사 경험자의 삶의 의미는 7점 만점 중 평균 5.12점으로 비경험자의 삶의 의미 평균 4.66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아서($p=.002$), Yoon [25]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죽음준비교육 후 삶의 의미가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같았다. 삶의 의미가 높을수록 생활만족감과 자존감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년이나 종교 유무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7]에서는 종교 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입시준비로 바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경우 종교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

Table 4. Meaning of Life and Attitude toward Death by General Characteristics (N=468)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ing of life		attitude toward death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4.74±0.97	0.03 (.797)	2.73±0.44	-0.40 (.687)
	Female	4.74±1.01		2.75±0.44	
Grade	1st	4.76±1.01	0.20 (.818)	2.78±0.44	2.64 (.072)
	2nd	4.68±1.00		2.69±0.44	
	3rd	4.81±0.95		2.78±0.38	
Religion	None	4.65±1.02	2.01 (.092)	2.72±0.43	4.25 (.002)
	Protestant	4.92±0.93		2.82±0.45	
	Buddhist	4.62±0.98		2.69±0.44	
	Roman catholic	4.75±1.08		2.74±0.39	
	Others	5.13±1.18		3.29±0.47	
Death education and hospice volunteering	Yes	5.12±1.37	3.19 (.002)	2.93±3.92	4.81 (.001)
	No	4.66±1.50		2.70±4.44	

Table 5. Sub-categories of Attitude toward Death by General Characteristics (N=468)

Variables	Total	Gender			Religion			Hospice volunteering experience with death education			
		M±SD	Male	Female	t (p)	Having	Not having	t (p)	Yes	No	t (p)
			M±SD	M±SD		M±SD	M±SD		M±SD	M±SD	
Taboo	3.25±.749	2.08±0.81	2.50±0.78	3.32 (.001)	2.57±0.80	2.55±0.79	0.22 (.826)	2.72±0.72	2.52±0.81	2.20 (.028)	
Avoidance	3.08±.684	2.97±0.68	3.33±0.75	-4.39 (<.001)	3.37±0.78	3.15±0.71	3.24 (.001)	3.60±0.60	3.16±0.76	6.00 (<.001)	
Insecurity and fear	2.56±.798	2.48±0.58	2.46±0.53	0.30 (.760)	2.43±0.54	2.48±0.53	1.19 (.236)	2.42±0.50	2.46±0.54	-0.78 (.434)	
Denial	2.46±.539	1.94±0.66	1.77±0.65	2.28 (.023)	1.84±0.68	1.78±0.63	1.13 (.684)	1.91±0.72	1.78±0.64	1.67 (.095)	
Grief	1.80±.658	3.01±0.73	3.11±0.67	-1.23 (.219)	3.08±0.72	3.10±0.65	-0.23 (.818)	3.30±0.62	3.02±0.69	3.70 (<.001)	

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삶의 의미 측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삶의 목적이 삶의 즐거움보다 점수가 높으므로 ‘지금’당장의 행복감 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로 노력하고 있는 세대라고 볼 수 있다.

성별, 종교 유무, 죽음교육경험과 호스피스자원봉사 경험 유무에 따라 죽음태도의 차이를 보였다. 죽음교육과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경험한 학생이 경험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죽음에 대해 회피하고 금기시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죽음교육 후 죽음불안과 죽음회피가 높아졌다는 Yoo [23]의 결과와 같았으나,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이 죽음교육 및 호스피스자원봉사 경험 후 죽음에 대해 더욱 초연해졌다는 선행연구[25,28]의 결과와는 달랐다. 이들 선행연구의 대상자들이 대부분 중년여성들이어서 삶의 여정에

서 타인의 죽음을 이미 경험한 경우가 많고 죽음준비교육에 스스로 참석한 대상자들이므로 자신이나 타인의 죽음에 관심을 갖고 있었을 것임을 짐작 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간의 죽음교육과 호스피스자원봉사를 경험하면서, 심리적으로 성숙되지 못했고 죽음을 거의 경험해 보지 못한 고등학생들의 경우, 많은 고통을 겪으며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환자들을 돌보면서, 생명의 유한성을 절감해 삶의 의미는 향상되었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부감을 느껴서 선행연구와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도 죽음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성별에 의한 차이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죽음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의 죽음태도가 더 부정적이었

다는 Yoo [23]의 결과와 같았다. 종교의 종류에 따라 죽음태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서 선행연구결과[5,23]와 같았다. 기타 종교에서 죽음태도가 가장 부정적이었고 기독교, 가톨릭, 불교 순이었다. 또한 죽음회피 하위영역에서 유 3.37점, 무 3.15점으로 종교가 있을 경우 죽음회피의 경향이 나타나 종교가 있을 경우 죽음을 잘 수용한다는 Park [5],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종교가 있는 학생이 더 죽음태도가 긍정적이라는 Kang [27]의 결과와 달랐다. 그러나 죽으면 이승에서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물음에는 종교 유 2.73점, 종교 무 2.98점으로, 종교를 가진 대상자가 죽음으로 현재의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을 더 많이 갖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의지와 노력이 더 강할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종교가 있는 학생들이 오히려 종교에서 강조하는 내세에 대한 확신이 더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생들의 사후 세계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고, Fonseca [29]에 의하면 종교가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였으나 고등학생들은 추상적이고 내세지향적인 종교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수험생으로서의 현실에 더 몰두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호스피스 인식에 있어서 인지 경로는 학교수업과 매스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학교교육과 매스컴의 중요성을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다. 치료불가 말기암 판정을 받았을 때 간호를 받고 싶은 장소로는 64.8%가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기를 선호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22]에서 노인들의 53%가 호스피스를 원치 않는다고 답해서 70%가 이용하겠다고 답한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지만, 가족이 말기 질환을 앓고 있을 때 가장 원하는 장소로 27.7%만 집에서 머무르기를 원해 본 연구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아직 죽음을 본인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청소년들과, 생의 발달단계상 삶의 마무리시점에서 죽음을 가까이 의식하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핵가족화로 인해 가정에서의 간호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는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품위 있는 죽음으로서는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대답이 절반 가까이 차지해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의 존재를 가장 우선시함을 드러내었고, ‘지금까지의 삶이 의미 있게 생각되는 것’이 그 뒤를 이었다.

결 론

삶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어가는 때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불확실성과 예민한 감수성, 미성숙된 인격체이기도 한 고등학

생 시기에, 학생들의 죽음 교육과 호스피스 자원봉사 경험이 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삶의 의미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삶의 의미와 죽음태도, 호스피스 인식에 있어서 성별, 학년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종교가 삶의 의미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주지 않았으나 죽음태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선행연구[8]에서 삶의 의미와 정신적, 신체적 건강행위가 긍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생활만족도와 자존감을 높인다고 했으며, 존엄하고 품위 있는 죽음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죽음준비교육이 필요하다[13]고 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삶의 의미 요소와는 다르게 죽음을 회피하고 금기시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일회적이고 한시적인 죽음교육과 현장에서의 호스피스 봉사는 생의 유한성을 자각해 삶의 의미는 높였으나, 영화나 드라마 등을 통해 피상적이고 낭만적으로 미화되거나 과장된 죽음이 아니라, 현실에서 고통을 받으며 생명을 소진해 가는 환자들을 목격함으로써 충격과 심적 부담을 유발하여 죽음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죽음도 삶의 한 여정임을 일깨워줄 수 있도록 호스피스자원봉사를 접목한 죽음준비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대상자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죽음교육기간이나 호스피스 자원봉사 기간에 따른 죽음에 대한 태도나 삶의 의미의 변화를 추적 관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2015 life tables for Kore [Internet]. Seoul: Author; 2016 [cited 2016 November 16]. Available from <http://kosis.kr/>
2. Kim SH. Outrageous suicide, teen's screaming without sound. Kookminilbo. 2013 April 16; Sect. 01.
3. Choi YC. Suicide prevention, education in respect of life is more urgent than administrative administration. Munhwa-ilbo. 2013 Feb 26; Sect. 31.
4. Mak MHJ. Chinese secondary students' knowledge of, and attitudes toward death, dying, and life education: A qualitative study. *Illness, Crisis & Loss*. 2011;4:309-327.
5. Park YS. High school students' attitude toward death. *Education Research*. 1990;26(4):93-115.
6. Oh JT. *The last present*. Seoul: Sejong books; 2007. p. 1-280.
7. Frankl VE. *Man's search for meaning*. New York: Washington

- Square Press; 1963. p. 1-155.
8. Min KC. The study about death-programme for education of young people [master's thesis].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2006. p. 1-66.
 9. Kim JH, Min KH. Predictors of death competency among the elders. *Korean Journal of Personal Psychology*. 2010;24:11-27.
 10. Choi MS. The moderate effect of religious coping on purpose of life and the effective -ness of the logotherapy program [master's thesis]. Jeonju: Jeonbuk University; 2009. p. 1-134.
 11. Kübler-Ross E. *Death: The final stage of growth*. 15th ed. Chicago: Englewood Cliffs; 1975. p. 1-175.
 12. Kang SB. Death problems in education. *Education Development*. 1996;8:1-160.
 13. Oh JT. *Life, asking the way to death*. 1st ed. Seoul: Papermirror; 2010. p. 1-296.
 14. Deeken A. *How will you meet death?*. Translation: Oh JT. Gyeong-gi, Goongli; 2002. p. 1-249.
 15. Yang BH. Hospice medical insurance also applies to AIDS-cirrhosis [Internet]. Seoul: Mpress; 2016 [cited 2016 November 16]. Available from: <http://Mpress.kr/>
 16. Park SC. A study on the death orientation of hospice volunte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992;22:68-80.
 17. Han JE, Choi ES. Quality of life and related factors in hospice volunteers. *Asian Oncology Nursing*. 2006;6:143-151.
 18. Kim MS, Lee CS, Kim HC. The effects of hospice volunteer education program on perceptions about hospice and the meaning of life. *Asian Oncology Nursing*. 2007;8:131-139.
 19. Park YS, Lee SO, Hong SA. A comparative study on death orientation and self-esteem between hospice volunteer experience and hospice volunteer non-experience of middle-aged women. *Korea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Journal*. 2012;6: 35-44.
 20. Crumbaugh & Maholick. *Manual of instructions for the purpose in life test*. Ohio: Munster; 1969. p. 1-8.
 21. Kim TH. The effects of hope and meaning of life on adolescent's resilience [master's thesis]. Seoul: Hanyang University; 2004. p. 1-188.
 22. Collet L, Lester D. The fear of death and the fear of dying. *The Journal of Psychology*. 1969;72:179-181.
 23. Yoo HJ. Death attitudes regarding of high school students and death preparation education at school [master's thesis]. Daegu: Youngnam University; 2007. p. 1-67.
 24. Lee IL. Attitude to death and hospice perception in the Elderly [master's thesis]. Seoul: Dongkook University; 2007. p. 1-111.
 25. Yoon MO. Effect of a death preparing education program on death anxiety and meaning of life in volunteers. *Korea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Journal*. 2009;12(4):199-208.
 26. Kim JY. Relationship with religion and meaning of life level, anxiety [master's thesi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1994. p. 1-64.
 27. Kang SK. A Study on the death of youth - Focusing on relation between death and religion [master's thesis]. Seoul: Dongguk University; 2002. p. 1-62.
 28. Kang GS. Hospice volunteers' death awareness, hospice awareness, attitudes and nursing needs compared with hospice education. *Basic Nursing Science*. 2003;10(2):223-233.
 29. Fonseca LM. The emergence of thanatology and current practice in death education. *OMEGA*. 2012;64(2):159-170.